

사이버대학의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박준철

대구사이버대학교 경영학과
(jcking@dbu.ac.kr)

출범 6년제를 맞이하고 있는 사이버대학은 양적·질적으로 기회와 어려움을 동시에 경험하고 있다. 특히 미래 교육의 패러다임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의 형태로 변화되어지는 시점에서 온라인 교육의 대표적인 대학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사이버대학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이버대학에 대한 현황과 현실적으로 사이버대학이 직면하고 있는 강점과 약점 그리고 기회와 위협을 SWOT분석을 통해 파악하고 이를 통해 미래 발전적인 대학 모델로 거듭나기 위한 사이버대학의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제어: 사이버대학, SWOT

1. 서론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개혁의 과제로 1998년 “가상대학 프로그램 시범운영대학 선정계획”을 발표한 후, 1999년까지 2년간 시범 및 실험 운영과정을 거친 후에 법률을 제정하여 “평생교육법”을 공포하였고, 2000년 3월 13일 평생교육법 시행령과 더불어 사이버대학의 인가를 시작하였다. 그 결과 2001년 9개 대학(4년제 7개, 2년제 2개)에서 출발한 사이버대학은, 2002년 15개 대학(4년제 12개, 2년제 3개), 그리고 2005년 4월 1일자 교육부에서 발표한 통계를 기준으로 전국에 17개 대학(4년제 15개, 2년제 2개)에서 180개 학과 56,460명의 재학생이 수업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2004년 2월에는 사이버대학에서 국내 첫 학사학위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그 동안 사이버대학은 법적 근거에서 명시하듯이 평생교육 기관으로 설립되었으나, 2년제 혹은 4년제 대학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음으로 인해 실질적인 고등교육기관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오고 있다(이준, 2005). 특히 설립 된지 5년 만에 이처럼 많은 수의 학생이 사이버대학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인터넷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사이버대학에서 교육을 원하는 많은 학생들의 수요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사이버대학에 관한 정의는 연구자들에 따라 서로 다르게 정의를 내리고 있다. 황대준(1998)은 사이버대학을 “컴퓨터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물리적인 공간이 아닌 전자화된 사이버 공간에서 같은 시간대 혹은 시간을 초월하여 대부분의 교육활동이 일어나는 원격고등교육기관으로 가상 또는 사이버 공간에서 대학의 학위취득을 목표로 가상교육을 실시하는 것”, 박종선(1999)은 “컴퓨터기술을 활용해 사이버공간에서 교수-학습활동의 대부분을 수행하는 동시에 제반 학사운영 및 관리업무를 처리하는 하나의 지원체계를 의미”로, 최경애(1997)는 사이버대학을 “컴퓨터 테크놀로지를 활용해 만들어진 사이버공간에서 자료제공, 정보탐색, 주제토론, 과제제출, 평가와 같은 주요 교수-학습활동의 대부분을 수행하는 동시에 강의등록, 수업료 납부, 학점관리, 학위취득 등의 제반 학사운영

* 본 연구는 2006학년도 대구사이버대학교 학술연구지원비에 의한 논문임

및 관리업무를 처리하는 하나의 체제”로 정의내리고 있다. 이처럼 사이버대학의 정의는 기존의 오프라인 대학과는 전혀 다른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 및 학습 환경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미래 발전적인 대학교육 기관의 모델로서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박준철, 정기호, 2005). 하지만, 현재 사이버대학은 평생교육기관이나 혹은 고등교육기관이나의 정체성 문제와 사이버특성으로 인한 학생들의 수강 및 학사 관리의 어려움, 재학생 재 등록률의 저하 등과 같은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다. 특히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국립대학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같은 기존 대학과의 경쟁은 초기 단계인 사이버대학의 입장에서는 상대적인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어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이버대학에 대한 현황과 현실적으로 사이버대학이 직면하고 있는 강점과 약점 그리고 기회와 위협을 SWOT분석을 통해 파악하고 이를 통해 미래 발전적인 대학 모델로 거듭나기 위한 사이버대학의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사이버대학에 대한 고찰

2.1 사이버대학의 설립 유형

우리 나라에서는 전국에 17개의 사이버대학(4년제 15, 2년제 2)이 설립 운영되고 있다. 이를 설립 주체에 따라 구분해 보면 크게 2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즉, 학교법인이 설립한 사이버대학과 컨소시엄형 비영리재단법인이 설립한 사이버대학으로 나눌 수 있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2.2 사이버대학의 현황

2005년 4월 1일자 기준으로 현재 17개 사이버대학(4년제 15, 2년제 2)에서 개설하고 있는 학과는 총 180개 학과이며, 이를 계열별로 구분하면 인문계열, 사회계열, 자연계열, 교육계열, 공학계열, 의약계열, 예체능계열 등 총 7개의 계열로 나눌 수 있다. 인문계열은 다시 언어·문학 및 인문과학으로 구분되어진다. 즉, 언어·문학에는 국어·국문학, 일본어·문학, 중국어·문학, 영미어·문학, 교양어·문학의 5개 전공으로 나누어지고, 인문과학은 문화·민속·미술사학, 심리학, 종교학, 국제지역학의 4개 전공으로 나누어진다. 사회계열은 경영·경제, 법률, 사회과학으로 세분화되며, 경영·경제는 경영학, 경제학, 관광학, 광고·홍보학, 금융·회계·세무학, 무역·유통학의 6개 전공으로 나누어지며, 법률은 법학의 단일전공으로 사회과학은 가족·사회·복지학, 사회학, 언론·방송·매체학, 행정학, 교양사회과학의 5개의 전공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연계열은 생활과학 분야의 식품영양학 단일 전공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계열은 교육일반 영역의 교육학 전공과 유아교육 영역의 유아교육학 전공, 특수교육학 영역의 특수교육전공으로 이루어져 있다. 공학계열은 기계금속 영역의 단일 전공인 자동차공학전공과 컴퓨터·통신 영역의 전산·컴퓨터공학, 응용소프트웨어공학, 정보·통신공학의 3개 전공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약계열은 치료·보건 영역의 보건학 전공과 재활학 전공의 2개로 이루어져 있다. 예체능계열은 디자인 영역의 패션디자인, 기타디자인의 2개 전공으로, 응용예술 영역에서는 사진·만화, 영상·예술과 같은 2개 전공으로, 무용·체육 영역은 무용전공, 체육전공으로 연극·영화 영역은 연극·영화 단일전공으로 음악영역은 기악과 기타음악의 2개 전공으로 세분화 되어 있다. 개설학과 중에서 모든

<표 1> 학교법인이 설립한 사이버대학

사이버대학명 (인터넷주소, 개교연도)	설치자/관련학교	소재지
경희사이버대학교 (http://www.khcu.ac.kr/2001년)	-학교법인: 고학재단 -관련대학: 경희대학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1 경희대학교 내
부산디지털대학교 (http://www.bdu.ac.kr/2002년)	-학교법인: 동서학원 -관련대학: 동서대학교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동 167 동서대학교 내
원광디지털대학교 (http://www.wdu.ac.kr/2002년)	-학교법인: 원광학원 -관련대학: 원광대학교	전북 익산시 신룡동 344-2 원광대학교 내
대구사이버대학교 (http://www.dcu.ac.kr/2002년)	-학교법인: 영광학원 -관련대학: 대구대학교	경북 경산시 진량읍 내리리 15 대구대학교 내
세종사이버대학교 (http://www.cybersejong.ac.kr/2001년)	-학교법인: 대양학원 -관련대학: 세종대학교	서울특별시 광진구 군자동 111-1 세종대학교 내
한양사이버대학교 (http://www.hanyangcyber.ac.kr/2002년)	-학교법인: 한양학원 -관련대학: 한양대학교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17 한양대학교 내
사이버외국어대학교 (http://www.cufs.ac.kr/2004년)	-학교법인: 동원육영회 -관련대학: 한국의국어대학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동 270 한국의국어대학교 내
세계사이버대학 (http://www.world.ac.kr/2001년)	-학교법인: 한민족학원 -관련대학: 한민학교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 376-2
세민디지털대학교 (http://www.usm.ac.kr/2001년)	-학교법인: 경북학원 -관련대학: 경북외국어테크노대	경북 경산시 남천면 협석리 220-1 번지 경북외국어테크노대 내
영진사이버대학 (http://www.ycc.ac.kr/2002년)	-학교법인: 영진교육재단 -관련대학: 영진전문대	대구광역시 북구 복현동 218 영진전문대 내
국제디지털대학교 (http://www.gdu.ac.kr/2003년)	-학교법인: 광동학원 -관련대학: 군장대학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015-3
서울사이버대학교 (http://www.iscu.ac.kr/2001년)	-학교법인: 신일학원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3동 193

대학의 전공별 재적학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학생을 보유하고 있는 학과를 순서대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1위는 가족·사회·복지학, 2위는 경영학, 3위는 기타디자인, 4위는 정보·통신공학, 5위는 영미어·문학, 6위는 교양사회과학, 7위는 금융·회계·세무학, 8위는 교양어·문학, 9위는 교육학, 10위는 국제지역학, 11위는 심리학, 12위는 전산·컴퓨터공학, 13위는 응용소프트웨어공학, 14위는 특수교육, 15위는 법학, 16위는 언론·방송·매체학, 17위는 행정학, 18위는 영상·예술,

19위는 무역·유통학, 20위는 체육, 21위는 유아교육학, 22위는 광고·홍보학, 23위는 일본어·문학, 24위는 경제학, 25위는 문화·민속·미술사학, 그리고 중국어·문학과 사진·만화 2개 전공은 나란히 26위에 올랐다. 28위는 국어·국문학, 29위는 사회학, 30위는 연극·영화, 31위는 보건학, 32위는 재활학, 33위는 관광학, 34위는 식품영양학, 35위는 기악, 36위는 무용, 37위는 패션디자인, 38위는 기타음악, 39위는 종교학, 마지막 40위는 자동차공학의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자동

<표 2> 컨소시엄형 비영리재단법인이 설립한 사이버대학

사이버대학명 (인터넷주소, 개교연도)	설치자/관련학교	소재지
열린사이버대학교 (http://www.ocu.ac.kr/2001년)	-재단법인: 열린사이버교육연합 -주관대학: 성균관대학교 -참여대학: 강릉대학교등 13개대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동 3가 53 성균관대 600주년 기념관 내
한국사이버대학교 (http://www.kcu.ac/2001년)	-재단법인: 한국대학가상교육연합 -주관대학: 연세대학교 -참여대학: 명지대학교등 36개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동134 연세대학교 내
서울디지털대학교 (http://www.sdu.ac.kr/2001년)	-재단법인: 디지털스쿨 -주관대학: 동아대학교 -참여대학: 원광대학교등 21개대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634-10
한국디지털대학교 (http://www.kdu.edu/2001년)	-재단법인: 한국디지털대학교육재단 -주관대학: 고려대학교 -참여대학: 숭실대학교등 6개대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 5가 1-2 고려대학교 내
한성디지털대학교 (http://www.hsdu.ac.kr/2002년)	-재단법인: 한성육영재단	경기도 안산시 이동 715-5

차공학은 학과개설만 했을 뿐 실제 학생모집은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17개의 사이버대학에서 모든 학과를 개설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체 학과의 재학생수를 사이버대학에서 개설한 학과의 수로 나누어 보면 훨씬 정확하게 전공별 우위를 파악할 수 있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위는 특수교육, 2위는 가족·사회·복지학, 3위는 심리학, 4위는 교양어·문학, 5위는 영미어·문학, 6위는 언론·방송·매체학, 7위는 기타디자인, 8위는 일본어·문학, 9위는 경제학, 10위는 문화·민속·미술사학, 11위는 교양사회과학, 12위는 금융·회계·세무학, 13위는 경영학, 14위는 중국어·문학, 15위는 국제지역학, 16위는 교육학, 17위는 정보·통신공학, 18위는 전산학·컴퓨터공학, 19위는 응용소프트웨어공학, 20위는 광고·홍보학, 21위는 무역·유통학, 22위는 사회학, 23위는 법학, 24위는 영상·예술, 25위는 사진·만화, 26위는 연극·영화, 27위는 보건학, 28위는 행정학, 29위는 재활학, 30위는 유아교육학, 31위

는 관광학, 32위는 체육, 33위는 국어·국문학, 34위는 무영, 35위는 패션디자인, 36위는 식품영양학, 37위는 기악, 38위는 기타음악, 39위는 종교학, 마지막 40위는 자동차공학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볼 때 1위로 나타난 특수교육의 경우 17개 사이버대학 중 대구사이버대학에서 유일하게 개설되어 있는 학과로 보육교사와 평생교육사 등의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특성화된 학과라 할 수 있다 또한 2위와 3위로 나타난 가족·사회·복지학, 심리학과는 사회복지사와 상담심리와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학과이다. 이처럼 국가 공인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학과와 기타 디자인이나 경영학, 정보·통신공학 등은 재교육 및 실무교육 등 성인 학습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직업 교육차원의 수요와 실무적인 지식의 습득을 반영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향후 사이버대학의 특성화 방안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를 시사해 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표 3> 사이버대학 현황

구분	학과수	재적학생수					구성 비율 (%)	재학생 누적 순위
		합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총계	180	56,460	15,608	12,496	19,033	9,323	100.00	
【인문계열】	25	8,500	2,838	2,194	2,378	1,090	15.05	-
[언어·문학]	15	5,260	1,789	1,294	1,414	763	9.32	-
국어·국문학	3	228	108	38	65	17	0.40	28
일본어·문학	1	363	142	133	88	-	0.64	23
중국어·문학	1	298	130	114	54	-	0.53	26
영미어·문학	6	2,573	830	789	657	297	4.56	5
교양어·문학	4	1,798	579	220	550	449	3.18	8
[인문과학]	10	3,240	1,039	880	964	327	5.74	-
문화·민속·미술사학	1	358	40	28	103	187	0.63	25
심리학	2	1,255	542	372	341	-	2.22	11
종교학	1	30	10	20	-	-	0.05	39
국제지역학	6	1,597	457	480	520	140	2.83	10
【사회계열】	89	33,439	8,899	8,045	11,348	5,147	59.23	-
[경영·경제]	54	16,035	4,091	3,639	5,572	2,733	28.40	-
경영학	41	12,497	3,113	2,758	4,246	2,380	22.13	2
경제학	1	359	97	81	181	-	0.64	24
관광학	1	103	58	45	-	-	0.18	33
광고·홍보학	2	449	104	119	226	-	0.80	22
금융·회계·세무학	6	1,967	542	487	698	240	3.48	7
무역·유통학	3	660	177	149	221	113	1.17	19
[법률]	5	871	139	185	299	248	1.54	-
법학	5	871	139	185	299	248	1.54	15
[사회과학]	30	16,533	4,669	4,221	5,477	2,166	29.28	-
가족·사회·복지학	16	12,548	3,255	3,535	3,942	1,816	22.22	1
사회학	1	206	36	34	77	59	0.36	29
언론·방송·매체학	2	844	212	197	289	146	1.49	16
행정학	7	828	272	185	250	121	1.47	17
교양사회과학	4	2,107	894	270	919	24	3.73	6
【자연계열】	2	70	21	19	-	-	0.12	-
[생활과학]	2	70	21	19	-	-	0.12	-
식품영양학	2	70	21	19	-	-	0.12	34

<표 3> 사이버대학 현황 (계속)

구분	학과수	재적학생수					구성 비율 (%)	재학생 누적 순위
		합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총계	180	56,460	15,608	12,496	19,033	9,323	100.00	
【교육계열】	12	3,113	664	259	1,555	635	5.51	-
[교육일반]	7	1,767	389	171	876	331	3.13	-
교육학	7	1,767	389	171	876	331	3.13	9
[유아교육]	4	464	99	-	320	45	0.82	-
유아교육학	4	464	99	-	320	45	0.82	21
[특수교육학]	1	882	176	88	359	259	1.56	-
특수교육	1	882	176	88	359	259	1.56	14
【공학계열】	24	5,631	1,392	1,035	1,827	1,377	9.97	-
[기계·금속]	-	-	-	-	-	-	-	-
자동차공학	-	-	-	-	-	-	-	-
[컴퓨터·통신]	24	5,631	1,392	1,035	1,827	1,377	9.97	-
전산학·컴퓨터공학	5	1,146	268	259	286	333	2.03	12
응용소프트웨어공학	5	1,125	384	298	337	106	1.99	13
정보·통신공학	14	3,360	740	478	1,204	938	5.95	4
【의약계열】	2	251	133	-	118	-	0.44	-
[치료·보건]	2	251	133	-	118	-	0.44	-
보건학	1	133	133	-	-	-	0.24	31
재활학	1	118	-	-	118	-	0.21	32
【예체능계열】	26	5,456	1,631	944	1,807	520	9.66	-
[디자인]	10	3,546	747	615	1,266	456	6.28	-
패션디자인	1	42	31	-	11	-	0.07	37
기타디자인	9	3,504	716	615	1,255	456	6.21	3
[응용예술]	7	1,119	412	216	354	55	1.98	-
사진·만화	2	298	106	54	75	35	0.53	26
영상·예술	5	821	306	162	279	20	1.45	18
[무용·체육]	6	554	337	59	158	-	0.98	-
무용	1	45	45	-	-	-	0.08	36
체육	5	509	292	59	158	-	0.90	20
[연극·영화]	1	143	60	35	29	9	0.25	-
연극·영화	1	143	60	35	29	9	0.25	30
[음악]	2	94	75	19	-	-	0.17	-
기악	1	63	63	-	-	-	0.11	35
기타음악	1	31	12	19	-	-	0.05	38

자료 : 2005년 교육통계연보, 계열별 자료는 '2004년도 학과(전공) 분류체계(2004,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라 산출됨

2.3 사이버대학에 관한 선행연구

이준(2005)은 사이버대학들의 교육과정, 사이버대학들이 처한 경영환경을 분석한 후 이를 기초로 교육과정의 특성화 방향을 도출하고 이와 연계하여 사이버대학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권문택(2005)은 유비쿼터스 환경하에서의 사이버대학에 관한 정보시스템 구축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허종렬(2002)은 원격대학 관련 법령 정비 방안에서 사이버대학의 설립 근거가 되는 평생교육법의 법적 모호함을 지적하고 사이버대학을 고등교육법으로의 이관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오혁진(2003)은 사이버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과목에 관한 요구 조사를 통해 기존의 오프라인 대학 교육과는 차별화된 교과목을 가지고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인원, 최지호, 이성근(2005)은 신뢰의 대상을 e-learning 환경에서 대학, 교수자, 학습자와 같이 다차원으로 확장시킨 후, 이들 신뢰대상이 학교 충성도이 미치는 효과와 더불어 다차원으로 분류된 신뢰 대상간의 상호관계적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임연옥(2002)은 사이버대학의 법제도적인 연구를 통해 향후 사이버대학의 대학원 과정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을 전망하면서 사이버대학이 학부 교육과정과 더불어 대학원 교육과정을 함께 운영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특히 이준, 정민승, 임연옥, 이경순(2004)은 사이버대학은 일반대학과는 달리 실무현장의 요구를 신속히 교육과정으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체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위탁 연수기관으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음을 제안하고 있다. 이처럼 사이버대학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실무적인 측면에서 사이버대학에 대한 연구의 접근을 시도하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기존의 선행연구는 미시적 측면에서의 연구 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였지만 본 연구

는 사이버대학에 대한 거시적 측면에서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향후 사이버대학이 발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III. 사이버대학의 발전 방안 도출을 위한 SWOT 분석

사이버대학이 미래 발전적인 형태의 대학교육기관으로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보다 나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적절한 경영전략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사이버대학의 발전 방안 설정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SWOT분석 기법을 활용하고자 하며, 특히 사이버대학은 설립주체가 어디냐에 따라 학교법인이 설립한 사이버대학과 컨소시엄형 비영리재단법인이 설립한 사이버대학으로 구분이 되어지기 때문에 사이버대학은 각기 서로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이버대학이 가지는 공통된 SWOT 분석 및 학교법인이 설립한 사이버대학과 컨소시엄형 비영리재단법인이 설립한 사이버대학에 대한 SWOT 분석을 동시에 구분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3.1 사이버대학의 공통 SWOT 분석

3.1.1 강점요인

사이버대학의 강점은 크게 다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는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즉, 사이버대학은 인터넷이 가능한 세계 어느 곳에서나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원하는 교육을 제공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둘째, 고등교육의 기회와 평생교육의 연결고리 역

<표 4> 사이버대학의 SWOT 분석

구분	사이버대학의 공통 SWOT 분석	학교법인 사이버대학 SWOT 분석	컨소시엄형 비영리재단법인사이버대학 SWOT 분석
강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는 교육의 기회 제공 · 고등교육의 기회와 평생교육의 연결고리 역할을 통한 교육의 기회 제공 · 직장인 및 주부, 노인 등에 대한 재교육, 평생교육의 기회 제공 · 교육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유연하고 특성화된 교육의 기회 제공 · 우수한 강사진의 확보 및 콘텐츠 개발기술의 발전을 통한 양질의 콘텐츠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프라인 대학과의 교류협력(인력, 시설 및 설비 등)을 통한 시너지 효과 · 기존 오프라인 대학의 명성을 통한 사이버대학의 이미지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법인 사이버대학과는 달리 온라인 특성을 쉽게 적용함으로써 유연한 학사운영 가능
약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생교육기관과 고등교육기관의 양면성으로 인한 정체성문제 · 사이버대학간의 과당 경쟁으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 · 오프라인 교육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수-학습자간의 상호작용성 부족 · 실험 및 실습 교과목에 대한 개발 및 학습의 어려움 · 표준화된 학사운영 프로그램의 미비로 인한 학사관리의 어려움 · 재학생의 재 등록률의 저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프라인 대학의 오프라인적 마인드 형성 · 오프라인 대학의 제반규정을 사이버대학의 특성을 반영하여 적용하는데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법인 사이버대학과는 달리 대학운영의 경험 미숙으로 전반적 대학행정에 어려움 초래
기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 발전적인 대학의 모델 가능성 · 사이버대학의 글로벌화 가능성 · 사이버교육의 지속적 발전 가능성 · 평생 교육에 대한 수요 증가 · 기업 및 단체의 사이버를 통한 재교육, 위탁 교육, 특수교육 등에 대한 수요 증가 · 사이버대학 졸업생들의 대학원 진학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프라인 대학과의 학점교류를 통한 안정적인 사이버교육 수요 확보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컨소시엄 대학간의 교류 활성화를 통한 안정적인 사이버교육 수요 확보 가능성
위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프라인 교육기관(대학)의 사이버교육 시장의 진입 강화 · 한국방송통신대학 등 경쟁기관에 비해 인지도 부족 및 가격경쟁력이 낮음 · 평생 교육을 위한 새로운 형태의 사이버교육 기관 설립의 증가 · 해외 사이버 교육기관의 국내 진입 증가 · 시스템에 대한 외부의 위협 요인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프라인 대학의 보수성으로 인해 온라인대학의 빠른 변화에 대응이 느림 · 오프라인 대학과의 교류가 원활하지 않을시 오히려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성기관의 의견차이로 인해 학교 내/외부의 문제에 대한 의견조율이 원활하지 않음 · 이사회 개최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중요한 의사결정 지연

할을 통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 즉, 사이버대학은 대학을 졸업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 전문학사 및 4년제 학사학위 과정을 통해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한국원격대학협의회(2005)에서는 주 5일 근무에 따른 성인학습 기회(평생교육)를 확대하여 2006년도 상반기부터 원격대학의 성인 학습콘텐츠(현재 145과목 수강가능)를 제공할 계획이며, (사)한국원격대학협의회 산하 “한국원격평생교육센터”를 설립 운영하여 과정이수자들의 학사관리와 공인된 성인학습프로그램을 활성화함으로써 사이버대학의 교육범위를 확대시키고 있다. 따라서 사이버대학은 학교 교육과 성인교육을 연결 짓는 중요한 가교역할을 하고 있다. 셋째, 직장인 및 주부, 노인 등에 대한 재교육,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 즉, 사이버대학은 학교 교육을 마친 성인학습자들이나 미처 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했던 학습자들에게도 비교적 수월하게 교육의 문을 열 수 있다는 점에서 평생교육의 이념을 제공한다 할 수 있다. 특히 미래사회의 평생교육과 관련된 교육 경쟁력의 질을 높여주는 현실적 대안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한다 할 수 있다. 넷째, 교육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유연하고 특성화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 사이버대학은 기존의 오프라인 대학과는 달리 유연하고 특성화된 학과 운영이 가능하다. 따라서 교육 수요자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교과과정이나 업무향상을 위한 실용적인 훈련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학습자에게 유연하고 특성화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다섯째, 우수한 강사진의 확보 및 콘텐츠 개발 기술의 발전을 통한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다. 즉, 사이버대학은 각 영역에서 우수한 교수 및 실무 전문가를 강의 내용에 따라 융통성 있게 초빙 할 수 있으며, 특히 대부분의 사이버대학에서는 콘텐츠 개발과 관련된 부서를 따로 두어 새로운 기술의 접목을 통한 양질의 콘텐츠 개발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3.1.2 약점요인

사이버대학의 약점은 크게 여섯 가지로 정리 할 수 있다. 첫째, 평생교육기관과 고등교육기관의 양면성으로 인한 정체성문제를 들 수 있다. 그 동안 사이버대학은 법적 근거에서 명시하듯이 평생교육기관으로 설립되었으나, 2년제 혹은 4년제 대학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음으로 인해 실질적인 고등교육기관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오고 있다(이준, 2005).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생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법 조항으로 인하여, 국가 자격시험, 사이버대학 재학생에 대한 각종 편의, 교직원 사학연금, 재정적 지원 등에 대해 제도적 불이익을 겪고 있다. 둘째, 사이버대학간의 과당 경쟁으로 인한 이미지손상 및 재정적 어려움을 들 수 있다. 사이버대학은 오프라인 대학과는 달리 모든 성인을 교육대상으로 하고 있다. 즉 목표 고객이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은 홍보를 필요로 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 목적 이외에 홍보에 많은 비용을 지불함으로써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사이버교육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콘텐츠의 질적 저하를 가져오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으며, 사이버대학 간의 과열경쟁은 결국 전체 사이버대학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셋째, 오프라인 교육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수-학습자간의 상호작용성 부족을 들 수 있다. 즉 전통적인 면대면 교육에 비해 피드백 제공, 의사소통 등 상호작용에 시간이 많이 걸리며, 자기주도적 학습 문화에 익숙하지 못한 학습자들의 경우 쉽게 포기할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사이버라는 특성으로 인해 이들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다. 넷째, 실험 및 실습 교과목에 대한 개발 및 학습의 어려움을 들 수 있다. 사이버대학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수업을 받기 때문에 실험 및 실습 교과목에 대한 개발과 학습자들의 학

습에 대한 어려움이 매우 크다. 특히 사이버 교육의 영역이 인문사회계열에 치중된 것도 바로 실험 및 실습의 어려움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다섯째, 표준화된 학사운영 프로그램의 미비로 인한 학사관리의 어려움을 들 수 있다. 사이버대학의 대학별 학사운영시스템은 초창기 개발회사와 자체개발의 경우 각 사이버대학의 재정적, 기술적, 인적 특성으로 인해 서로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특히 사이버대학의 설립근거가 평생교육법에 의해 설립되어 있는데 반해, 학사운영은 고등교육법에 준하여 운영되고 있다. 이와 같은 이중적 성격으로 인하여 각 사이버대학에서의 학사운영 프로그램은 대학별 자체운영 모델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로 인해 표준화된 학사관리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여섯째, 재학생 재 등록률의 저하를 들 수 있다. 사이버대학의 학생 대부분은 주부 혹은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공부를 하는 사회인들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오프라인 대학과 달리 현 직장에서의 장기간 출장, 업무의 과중, 부서이동, 전직, 입원, 출산,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중도에 학교를 휴학하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다. 또한 사이버대학은 면대면의 학습이 아니라 학생 측면에서는 자기 스스로 주도해 학습을 하는 자율학습체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실제 사이버를 통해 강의를 수강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의지와 노력이 매우 절실히 요구되어진다. 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과 학습에 대한 본인의 의지 부족으로 인하여 재학생들의 재 등록률이 오프라인 대학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3.1.3 기회요인

사이버대학의 기회요인은 크게 여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미래 발전적인 대학모델의 가능

성을 제시하고 있다. 사이버대학이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곳은 단연 미국이 꼽힌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2년제와 4년제가 있는데, 특히 2년제인 피닉스 사이버대학은 미국 최대의 온라인대학으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이 대학에는 경영학과 등 8개 학과가 개설되어 있다. 이 외에도 미국에는 이미 300개가 넘는 사이버대학이 있어 학생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있다. 명문대 가운데는 퍼듀대학과 오하이오대학이 사이버대학을 운영하고 있고, 학사과정 외에 석·박사나 MBA과정을 개설해 놓고 있는 대학도 적지 않다. 또한 영국이나 프랑스 등 유럽에서도 사이버대학의 열풍이 불고 있다. 특히 기존의 개방대학 수업을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방식으로 바꾸면서 자연스럽게 사이버대학이 많이 생겨나는 추세다. 영국은 대졸자의 80%가 개방대학이나 사이버대학 출신이라는 통계도 있다(한경비즈니스, 2004. 2. 25). 이처럼 교육의 패러다임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전환되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 각국의 예에서와 같이 향후 사이버대학이 오프라인의 단점과 온라인의 장점을 결합함으로써, 미래의 보편적인 대학교육기관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 사이버대학의 글로벌화 가능성을 들 수 있다. 사이버대학이 가장 보편화된 곳은 미국으로 온라인으로 대학 또는 대학원 강좌를 수강중인 학생만도 1400만명에 이른다. 특히 피닉스대는 애리조나주의 사막도시인 피닉스에 건물 두 동짜리 조그만 대학이지만 이 대학의 사이버 분교는 전 세계 학생들로 북적거린다. 교수 1명에 평균 18~22명의 학생들이 인터넷 교실에서 토론식으로 수업을 한다. e-메일과 게시판을 통해서는 강의에서 모자란 교육부문을 보충하며, 미국 전역과 해외 6만 4000여명의 학생이 피닉스대학의 사이버 분교에 재학중이다(매일경제, 2001. 12. 4). 이처럼 사이버대학은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 교육기관으로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

다. 셋째, 사이버교육의 지속적 발전 가능성을 들 수 있다. “2000년 발표된 메릴린치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계 고등교육 수요의 절반 가량인 4,000만명 이상을 인터넷교육이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또 향후 5년 내에 수백만명의 학생들이 등록하는 ‘글로벌 가상대학’이 생겨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한국일보, 2003. 12. 18). 따라서 향후 사이버교육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대되어지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넷째, 평생 교육에 대한 수요 증가를 들 수 있다. 주5일제 시행 등으로 평생교육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 예산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정부부처와 지자체의 예산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평생 또는 직업 교육에 투자된 예산은 4조원을 넘어섰다. 교육부, 노동부, 문화관광부 등 중앙 부처가 2조2천억원을 투입했고 지방자치단체는 1조5천억원, 교육자치단체는 958억을 각각 투입했다. 특히 교육부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제공하는 지자체를 ‘평생학습도시’로 육성해 컨설팅과 성과분석 등을 통해 예산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유도에 나간다는 방침이다(노컷뉴스, 2005. 9. 6). 이처럼 평생교육에 대한 수요의 증가는 결국 사이버대학의 교육서비스의 범위를 확대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다섯째, 기업 및 단체의 사이버를 통한 재교육, 위탁교육, 특수교육 등에 대한 수요 증가를 들 수 있다. 이준, 정민승, 임연욱, 이경순(2004)은 사이버대학의 교육과정을 산학협력이라는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다. 즉 사이버대학은 일반대학과는 달리 직업 현장의 요구를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교육과정에 반영할 수 있는 e-learning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기업체와의 연계를 통한 위탁연수기관으로서의 활용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경희사이버대학은 경상남도 고성군청과 지역사회 발전, 군민복지를 비롯하여

교육, 정보, 문화교류를 통해 군청 직원의 연수 및 위탁교육, 지역 인재양성 및 육성사업 등의 협력과 주문식 교육과정과 교육 교재의 공동 개발 및 교육을 실시하기로 하였으며(연합뉴스, 2005. 7. 21), 한국디지털대학은 한국관광공사와 공동으로 ‘2005 컨벤션 실무 온라인교육’을 과정 개설하였다. 이 과정은 국제회의 유치 업무 담당자 및 관련 과목을 전공하는 학생을 위한 과정으로, 국제회의 유치협상부터 기획·예산·홍보 등에 관한 전반적인 실무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전자신문, 2005. 9. 16). 이처럼 사이버대학은 학사학위 수여 이외의 기업 및 단체의 사이버를 통한 재교육, 위탁교육, 특수교육 등에 대한 수요 증가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대학 교육기관으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여섯째, 사이버대학 졸업생들의 대학원 진학 증가를 들 수 있다. 한양사이버대학의 경우 2006학년도 한양사이버대 출신 졸업예정자 566명 중 조사에 응한 51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5명(12.6%)이 대학원 진학을 확정했고 401명(78.1%)이 대학원 진학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일반 4년제 대학생의 대학원 진학률(10.7%)에 비해 매우 높은 것이다(국민일보, 2006. 2. 1). 특히 사이버대학의 이같은 현상은 학생들의 공부에 대한 열의가 매우 높고, 학위를 따기 위한 공부뿐만 아니라 평생교육으로서의 사이버교육에 대한 욕구가 점진적으로 증가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1.4 위협요인

사이버대학의 위협요인은 크게 다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오프라인 교육기관(대학)의 사이버교육 시장의 진입 강화를 들 수 있다. 전남대(광주·전남), 영남대(대구·경북), 강원대(강원) 등이 대학 경쟁력 제고와 인력양성을 지원하기 위한 ‘2005년도 대학 e-Learning지원센터’로 선정되었

으며, e-러닝 지원센터에는 스튜디오형 강의실, 교수·학습 지원 시스템, 디지털 콘텐츠 제작 시스템 등 고기능 e-러닝 기반시설이 설치된다. 이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는 전남대, 영남대, 강원대 등 3개 대학에 올해 19억63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기로 했으며, 센터 구축사업은 2007년까지 전국 10개 권역별로 1개 대학씩 e-러닝 지원센터를 지정해 116억원을 지원, 학점교류 등을 위해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온라인 강좌용 콘텐츠 등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2003년 제주대(제주권), 지난해 경상대(경남권)를 선정했다(내일신문 2005. 7. 14). 특히 이같은 오프라인 대학의 사이버 교육시장의 진입은 오프라인 대학 자체의 비용으로 사이버교육을 실시하기 보다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에 의한 것으로 사이버대학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전혀 없는 것과 비교해 볼 때 동일한 대학교육기관으로서의 지원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를 가져올 수 있으며, 사이버교육에 대한 초기 시장진입의 위험을 상당히 줄여주기 때문에 실제 온라인 교육시장에서 사이버대학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둘째, 한국방송통신대학 등 경쟁기관에 비해 인지도 부족 및 가격경쟁력이 낮다. 한국방송통신대학은 국립대학으로 30여년간 활동해 왔기 때문에 신설 된지 이제 5년 된 사이버대학과의 비교해 볼 때 인지도 측면에서 강한 강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등록금 수준은 한국방송통신대학의 경우 한 학기에 35만원 내외인데 반해 사이버대학의 평균 등록금 수준은 약 3~4배 정도로 높게 책정되어 있다. 이와 같은 등록금의 격차는 한국방송통신대학의 경우 국립대학으로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는데 반해 사이버대학은 학생등록금과 재단전입금과 같은 재원을 통해 학사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방송통신대학 등과 같은 교육기관과의 경쟁을 위해서는 한국방송통신대학에서 개설되어 있지 않는 특성화

된 학과의 신설과 외부기관의 전문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셋째, 평생교육·재교육을 위한 새로운 형태의 사이버교육기관 설립의 증가를 들 수 있다. 정부 및 공공기관, 대학, 사이버전문 교육기관, 기업체 연구소 등 다양한 기관에서 사이버교육 시장으로 진입하고 있다. 정부 및 공공기관은 조직혁신 및 학습 분위기 조성, 직원교육 등을 위해 e러닝 전문기업 등과 손잡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는 등 e러닝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국정브리핑, 2005. 6. 22). 또한 대학기관인 한국산업기술대는 e러닝 기술교육을 통해 사이버 교육의 영역이 인문사회계열에 치중된 것을 기술 분야에서 온라인 교육이 가능하다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으며(전자신문, 2004. 4. 19), 문화콘텐츠 전문 사이버 교육기관 사이버문화콘텐츠아카데미도 업계 종사자 뿐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디지털타임스, 2004. 2. 9). 특히 현대경제연구원 인재개발원은 현대정보기술과 토털 인재양성 서비스를 목적으로 전략적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하고, 종합교육서비스인 '현대아카데미'를 통해 핵심 리더 양성 과정, 조직활성화 과정 등 경영직무 과정과 각 IT 요소기술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 양성 과정, 전문자격 과정 및 사이버 교육을 선보이고 있다(디지털타임스, 2004. 2. 11). 이처럼 다양한 기관에서 사이버교육 시장에 진입함으로써 사이버 교육시장에 대한 경쟁은 더욱 치열해 질 전망이다. 넷째, 해외 사이버 교육기관의 국내 진입 증가를 들 수 있다. 미국에 소재하고 있는 대부분의 유명 대학은 현지에서와 똑같은 내용의 과정을 인터넷으로 수강할 수 있는 사이버 원격강의를 개설해 놓고 있다. 미국 대학 중 원격강의로 학위를 딸 수 있는 곳은 1,500여 군데 정도로 이 중 300여 곳의 강의를 한국에서도 수강할 수 있다(한국일보, 2001. 6. 10). 미국 콜롬비아대, 시카고대, 카네기멜론

대, 스탠포드대학, 영국의 런던정경대학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99년 설립한 미국의 카던대학도 경영학석사(MBA)과정을 인터넷으로 제공하고 있다(파이낸셜뉴스, 2003. 4. 13). 이처럼 해외 각국의 사이버교육기관의 국내시장으로의 진입은 사이버교육시장이 단순히 국내의 제한적 시장이 아닌 국제적 시장으로의 변화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시스템에 대한 외부 위협의 증가를 들 수 있다. 사이버대학은 오프라인 대학과는 모든 면에서 차별성을 보이고 있다. 특히 사이버교육시스템이 그 대표적인 예인데, 사이버교육시스템은 강의실도 될 수 있고, 행정실도 될 수 있고, 도서관도 될 수 있다. 오프라인 대학과는 달리 모든 교육과 관련된 자원이 바로 사이버교육시스템에 들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전자정부를 표방하고 있는 정부시스템에서도 보안과 관련된 문제가 불거져 나왔듯이, 은행, 기업, 연구소 등 모든 시스템과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해킹·바이러스·웜 등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특히 해킹을 통해 출신 대학의 본인 성적을 모두 A학점으로 바꾼 경우에서(국민일보, 2004. 10. 11)도 알 수 있듯이 사이버교육시스템에 대한 보안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2 학교법인 사이버대학 SWOT 분석

3.2.1 강점요인

학교법인 사이버대학의 강점은 첫째, 오프라인 대학과의 교류협력(인력, 시설 및 설비 등)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대구, 경희, 한양사이버대 등은 오프라인 대학과 학점 교류가 가능하고 오프라인 캠퍼스에서 직접 강의도 들을 수 있으며, 학교시설 및 도서관, 실습실 등 다양한 인적 물적 편의시설 공유를 통해서 온·오프라인 연계 교

육의 경쟁력을 최대한 높임으로서 시너지 효과를 올리고 있다. 둘째, 기존 오프라인 대학의 명성을 통한 사이버대학의 이미지를 제고시킬 수 있다. 실제로 사이버대학은 2001년에 출발하여 아직 그 역사가 일천하다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학교법인 사이버대학은 기존의 오프라인 대학의 명성과 전통 그리고 이미지를 온라인 상에 적용함으로써 교육수요자들에게 좀 더 나은 신뢰와 믿음을 제공해 주고 있다.

3.2.2 약점요인

학교법인 사이버대학의 약점은 첫째, 오프라인 대학의 영향으로 인해 오프라인적 마인드가 형성되어진다. 즉, 학교법인 사이버대학은 대부분 오프라인 대학을 그 기반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대학의 오프라인적 특성을 온라인에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가 발생되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서 사이버의 특성을 작용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둘째, 오프라인 대학의 제반규정을 온라인 특성을 반영한 사이버대학의 특성으로 적용하는데 현실적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학교법인 사이버대학은 대부분의 학교 운영과 관련된 규칙을 오프라인 대학의 것을 준용하고 있다. 하지만 오프라인 대학과 사이버대학은 그 특성이 상이함으로 인해 오프라인 대학의 규칙을 사이버대학에 적용하기에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구성원들 사이에서 이로 인한 이해의 부족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도 사실이다.

3.2.3 기회요인

학교법인 사이버대학의 기회는 오프라인 대학과의 학점 교류를 통한 안정적인 사이버교육 수요의 확보 가능성을 들 수 있다. 즉, 오프라인 대학과의

학점교류를 통해 교양강좌 특히 학생들의 수가 많은 대형 강좌일수록 학생들이 사이버강의를 선호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사이버대학은 안정적인 사이버교육의 수요 확보가 가능하고 이에 반해 오프라인 대학은 대형 강의실의 문제 및 수강관리에 대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학생들의 만족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

3.2.4 위협요인

학교법인 사이버대학의 위협은 첫째, 오프라인 대학의 보수성으로 인해 사이버 상의 빠른 변화에 대응이 상대적으로 느리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즉, 학교법인 사이버대학은 오프라인 대학을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컨소시엄의 비영리재단의 사이버대학보다는 보수적 성향이 강하다 따라서 이는 빠른 변화가 필요한 사이버대학에는 심각한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둘째, 오프라인 대학과의 교류가 원활하지 않을시 오히려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3.3 컨소시엄형 비영리재단법인 사이버대학 SWOT 분석

3.3.1 강점요인

컨소시엄형 비영리재단법인 사이버대학의 강점은 학교법인 사이버대학과는 달리 온라인 특성을 쉽게 적용함으로써 유연한 학사운영이 가능하다. 즉, 온라인 특성 및 변화에 대한 반응과 이해가 빠르고 이를 새로운 교육에 신속하게 적용함으로써 학생들의 만족감뿐만 아니라 참여도를 증가시킴으로써 컨소시엄형 비영리재단법인 사이버대학의 중요한 발전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3.3.2 약점요인

컨소시엄형 비영리재단법인 사이버대학의 약점은 학교법인 사이버대학과는 달리 대학운영의 경험 미숙으로 전반적 대학행정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실제로 컨소시엄형 비영리재단법인 사이버대학의 경우 대학행정에 대한 이해의 부족과 경험미숙으로 인하여 재정, 학사운영 그리고 학생관리 등 대학행정 전반에 걸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3.3.3 기회요인

컨소시엄형 비영리재단법인 사이버대학의 기회는 컨소시엄 대학간의 교류 활성화를 통한 안정적인 사이버교육 수요 확보 가능성을 들 수 있다. 실제로, 컨소시엄형 비영리재단법인에서 설립한 서울디지털대학교는 SDU연합을 결성해서 2005년 12월 현재 국내 4년제 53개의 대학과의 교류를 통해 2만여명 이상의 학생들이 수강에 참여함으로써 사이버교육의 수요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3.3.4 위협요인

컨소시엄형 비영리재단법인 사이버대학의 위협은 구성기관의 의견차이로 인해 학교 내/외부의 문제에 대한 의견조율이 원활하지 못하며, 특히 이사회 개최의 어려움으로 인해 중요한 의사결정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되어지고 있다. 즉, 컨소시엄형 비영리재단법인 사이버대학은 다양한 기관의 참여로 이루어진 집합체로서, 참여 기관의 이해에 따라 서로 다른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IV. 사이버대학 발전방안 도출

앞서 분석해 낸 사이버대학의 강점(strengths)과 약점(weaknesses) 그리고 변화가 가져다주는 기회(opportunities)와 위협(threats)을 기초 자료로 이들 각 요소들을 매트릭스 구조로 연결시킴으로서, 기회와 강점·약점, 위협과 강점·약점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표 5>에서 보는바와 같이 사이버대학 발전방안을 도출하였다.

① 시대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특성화 학과 신설

최근 사이버대학이 급성장하면서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 새로운 교육 방식으로서 많은 사람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것은 사이버대학이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벗어나 언제 어디서든 학습을 할 수 있다는 장점과 오프라인 대학의 3분의 1에 불과한 저렴한 학비, 그리고 학생 수에 관계없이 대량교육을 시킬 수 있는 이점 등 그 동안 대학을 갈 수 없었던 직장인이나 사회인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특히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이 사라지면서 자기 브랜드의 가치를 높여야 생존할 수 있다는 인식의 확산과 평생교육이라는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인하여 자기 개발에 나선 직장인, 주부,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사이버대학의 다양한 실용학과와 이색학과로 몰리고 있다(서울경제신문, 2005. 1. 18). 사이버대학에서 신설한 특성화된 학과로는 국내 4년제 정규 대학으로는 처음으로 객관적이고 의식적인 서술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무의식의 세계를 미술을 통해 탐구해 가는 심리치료 기법을 적용한 대구사이버대학의 ‘미술치료학과’(연합뉴스, 2004. 11. 25)와 경쟁력 있는 농업인과 농기업을 육성하는 경희사이버대학의 벤처농업경영학과, 현대인의 건강에 대한 관심

을 높이고 이를 실생활에 적용하기 위한 원광디지털대학의 요가·명상학과 등으로 일반대학과 달리 사회의 새로운 교육수요에 부합되는 현장중심의 다양한 특성화된 학과를 신설함으로써 사이버대학의 교육수요를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② 맞춤형 교육기관으로의 변화

사이버대학은 재학 중인 학생 이외의 정부기관 및 기업을 포함한 많은 관련 단체에서 직원의 연수와 재교육, 특수교육 및 위탁교육으로 교육대상을 확대시킬 필요성이 있다. 즉, 사이버 교육을 요구하고 있는 많은 관련 기관들은 기술적 부족, 인프라의 부족, 우수한 강사진 확보의 어려움, 경제적 부담 등으로 인하여 자체적으로 사이버교육을 운영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 또한 사이버교육을 실시한다 하더라도 지속적인 유지·관리의 어려움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자체적인 사이버교육의 활성화가 불가능하다. 일례로, 대구사이버대학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전국 17개 사이버대학 가운데 처음으로 ‘원격 교육연수원’ 설립을 인가 받고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교원들의 재교육 연수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교육 연수를 사이버 상에서 실시(연합뉴스, 2005. 1.30)하고 있다. 따라서 사이버대학은 사이버교육을 원하는 기관과의 협상을 통해 기관이 원하는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사이버대학의 교육서비스 수요를 확대시킬 수 있으며, 사이버대학의 교육서비스 영역을 학사학위 수여기관의 역할뿐만이 아니라 전문화된 맞춤형 교육기관으로서의 이미지를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③ 학생들과의 상호작용성 확대

사이버대학의 교육은 학생 스스로 자기 주도하의 학습을 하는 자율학습체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수업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적극적으로 수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전임조교제를 통한 물

<표 5> 사이버대학의 발전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점(Strengths) · 약점(Weakness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회(Opportunities) · 위기(Threats) 	<p>- 사이버대학의 공통된 Strength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는 교육의 기회 제공 · 고등교육의 기회와 평생교육의 연결고리 역할을 통한 교육의 기회 제공 · 직장인 및 주부, 노인 등에 대한 재교육, 평생교육의 기회 제공 · 교육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유연하고 특성화된 교육의 기회 제공 · 우수한 강사진의 확보 및 콘텐츠 개발 · 기술의 발전을 통한 양질의 콘텐츠 제공 <p>- 학교법인 사이버대학의 Strength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프라인 대학과의 교류협력(인력, 시설 및 설비 등)을 통한 시너지 효과 · 기존 오프라인 대학의 명성을 통한 사이버대학의 이미지 제고 <p>- 권소시업형 비영리재단법인 사이버대학의 Strength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법인 사이버대학과는 달리 온라인 특성을 쉽게 적용함으로써 유연한 학사운영 가능 	<p>- 사이버대학의 공통된 Weaknesse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생교육기관과 고등교육기관의 양면성으로 인한 정체성문제 · 사이버대학간의 과당 경쟁으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 · 오프라인 교육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수-학습자간의 상호작용성 부족 · 실험 및 실습 교과목에 대한 개발 및 학습의 어려움 · 표준화된 학사운영 프로그램의 미비로 인한 학사관리의 어려움 · 재학생의 재 등록률 저하 <p>- 학교법인 사이버대학의 Weaknesse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프라인 대학의 오프라인적 마인드 형성 · 오프라인 대학의 제반규정을 사이버대학의 특성을 반영하여 적용하는데 어려움 <p>- 권소시업형 비영리재단법인 사이버대학의 Weaknesse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법인 사이버대학과는 달리 대학운영의 경험 미숙으로 전반적 대학행정에 어려움 초래
<p>- 사이버대학의 공통된 Opportunitie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 발전적인 대학의 모델 가능성 ·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대학의 글로벌화 가능성 ·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교육의 지속적 발전 가능성 · 평생 교육에 대한 수요 증가 · 기업 및 단체의 사이버를 통한 재교육, 위탁교육, 특수교육 등에 대한 수요 증가 · 오프라인 대학과의 협력을 통한 안정적인 사이버교육 수요 확보 가능성 · 사이버대학 졸업생들의 대학원 진학욕구 증가 <p>- 학교법인 사이버대학의 Opportunitie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프라인 대학과의 학점교류를 통한 안정적인 사이버교육 수요 확보 가능성 <p>- 권소시업형 비영리재단법인 사이버대학의 Opportunitie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소시업 대학간의 교류 활성화를 통한 안정적인 사이버교육 수요 확보 가능성 <p>- 사이버대학의 공통된 Threat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프라인 교육기관(대학)의 사이버교육 시장의 진입 강화 · 한국방송통신대학 등 경쟁기관에 비해 인지도 부족 및 가격 경쟁력이 낮음 · 평생 교육을 위한 새로운 형태의 사이버 교육기관 설립의 증가 · 해외 사이버 교육기관의 국내 진입 증가 · 시스템에 대한 외부의 위협 요인 증가 <p>- 학교법인 사이버대학의 Threat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프라인 대학의 보수성으로 인해 온라인대학의 빠른 변화에 대응이 느림 · 오프라인 대학과의 교류가 원활하지 않을시 오히려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p>- 권소시업형 비영리재단법인 사이버대학의 Threat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성기관의 의견차이로 인해 학교 내/외부의 문제에 대한 의결조율이 원활하지 않음 · 이사회 개최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중요한 의사결정 지연 	<p><사이버대학의 발전 방안></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시대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특성화 학과 신설 ② 맞춤형 위탁 교육 ③ 학생들과의 상호작용성 확대 ④ 재정적 수입원의 다양화 ⑤ 콘텐츠의 질을 확보 할 수 있는 방안 마련 ⑥ 표준화된 학사운영시스템 도입 ⑦ 사이버교육 시스템의 안정적 유지·운영을 위한 보안강화 ⑧ 외국학생 및 재외동포 교육 ⑨ 오프라인 대학과의 교류·협력 강화 ⑩ 사이버대학원 설립 ⑪ 해외 사이버대학과의 교류 협력 증진 ⑫ 평생교육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고등교육기관으로의 전환을 통한 사이버대학의 이미지 제고 및 정부 지원 확대 ⑬ 사이버대학 간의 건전한 경쟁질서 확립 	

리적 상호작용성을 높이는 거와 같이 최소한의 강제성을 지니게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수와 학생, 교육 콘텐츠를 상호 작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고, 학생들의 학습 소외감을 극복하고, 유대감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통로를 만들어 놓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정기적인 특강을 통해 다양한 강의 방식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만족도를 증가시키는 동시에 재학생 학교 방문의 날 행사, 체육대회와 같은 오프라인 모임을 통해 학교에 대한 소속감과 학습에 대한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낼 필요가 있다.

④ 재정적 수입원의 다양화

대부분의 사이버대학은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오프라인 대학에서도 동일하게 발생되고 있다. 하지만 사이버대학은 사이버대학의 특성을 살려 학생들에 대한 등록금 의존율을 낮추고, 기부금, 발전기금 제도를 확립하고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통한 수익을 통해 재정에 있어서 다각화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각 사이버대학에 맞는 독자적인 특성화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교육의 질 향상에 따른 사회 인식 변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오프라인 편의 시설 확충 및 e러닝 공동 연구를 통한 발전 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⑤ 콘텐츠의 질을 확보 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사이버대학의 핵심 경쟁우위의 원천은 양질의 콘텐츠라 할 수 있다. 특히 질 높은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콘텐츠에 대한 질 관리를 우선할 필요가 있다. 즉, 부실한 콘텐츠를 보완하고 나아가 다양한 형태의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동일한 콘텐츠라 할지라도 학생들이 흥미를 느끼며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기술 및 강의기법을 도입하는 등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수요자(학생) 중심의

교육을 실현하는데 콘텐츠의 질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되어질 수 있으며, 단순한 운영 강좌보다는 교육 철학에 바탕을 둔 교수법 적용을 통해 콘텐츠 설계 및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하나의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서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들기 때문에 여러 대학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강좌의 경우에는 공동의 콘텐츠 개발과 교환이 필요하며, 특정 강좌에 있어서 사이버대학에서 개발하기 어려운 경우는 전문 영역과 관련된 사이버교육 업체들과의 제휴를 통해 사이버대학에서는 우수한 교수진을 제공하고 개발은 전문 업체의 기술 및 인프라 그리고 노하우를 접목시켜 콘텐츠의 질을 확보할 수 있다. 특히 콘텐츠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및 사용자의 이용환경에 따라서 다양한 요소를 기준으로 설계되어야 하는데, 즉, 시간제약성, 공간제약성, 상호작용관점에서 서로 다른 특징을 갖는 다양한 교육방법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가능한 관련 기술에 대해서 개방형의 형태를 가짐으로써 모든 사용자들이 호환성에 대한 기술적 어려움이 없이 이용 가능해야 하며, 특히 교수-학습자 사이의 상호작용성을 높임으로써 온라인 강좌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도록 콘텐츠 질 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함으로써 콘텐츠의 질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

⑥ 표준화된 학사운영시스템 도입

사이버대학의 학사관리는 오프라인의 학사관리와는 달리 매우 어렵다. 특히 학습자관리(과제물, 시험), 출석관리, 주제별 토의, 프로젝트, 리포트, 수업참여도 등 모든 학사 관리가 면대면이 아닌 시스템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운영에 상당한 주의를 필요로 하고 있다. 또한 각 사이버대학들의 학사운영시스템이 개발회사들 그리고 사이버대학 자체개발의 경우 각 학교의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른 시스템 기준에 의해서 개발됨으로써 많은 문제점

등이 나타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상당수의 원격대학이 학사 및 회계 관리 등이 부실할 뿐만 아니라, 일부 원격대학의 경우에 학사시스템의 부실로 인해 출결관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연합뉴스, 2005. 8. 29).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 사이버대학은 표준화된 학사운영시스템의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표준화된 학사운영시스템에 들어갈 주요 내용으로는 학습관리시스템(LMS), 학습콘텐츠관리시스템(LCMS), 콘텐츠개발관리시스템(CDMS), 상담시스템, 인터넷 증명 발급 및 웹 출력 시스템 등 학사운영 전반에 걸친 시스템의 구성과 학사 운영 및 관리 체계를 제고하고 학습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운영시스템의 표준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⑦ 사이버교육 시스템의 안정적 유지·운영을 위한 보안강화

사이버대학은 물리적인 강의실에서 수업 받는 오프라인 대학의 환경과는 달리 실체가 없는 가상공간을 이용하여 모든 학사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시스템의 안정적인 유지·운영이 가장 중요한 사항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사이버대학들은 각 대학의 특성에 따라 시스템 운영 및 보안과 관련하여 두 가지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첫째, 사이버대학 자체적으로 서버의 운영 및 보안을 수행하는 경우와 둘째, IDC(Internet Data Center)와 같은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서버의 운영과 보안을 하는 경우이다. 일반적으로 IDC(Internet Data Center)와 같은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서버의 운영과 보안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관에서 네트워크 보안 및 시스템 보안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발생될 요인은 줄어들지만 사이버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서버의 운영과 보안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기술적요인, 환경적요인, 인적요인에 있

어서 부족한 점이 많이 발생되어지고 있다. 즉, 사이버대학 자체에서 운영할 경우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방진시설 및 온도,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게 해주는 환경시설에 많은 비용과 특히 전문 인력의 확보와 기술적 관리의 부족으로 인하여 해킹, 워 등에 대한 침해행위의 위험을 방지하기가 외부전문기관에 의뢰 할 때와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상당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사이버대학은 이와 같은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시스템의 안정적 유지, 운영을 위해 보안에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임으로서 콘텐츠 및 학사정보와 관련된 안전성을 확보시킬 필요가 있다.

⑧ 외국학생 및 재외동포 교육

한양사이버대학은 2005학년도 2학기 입시에서 중국인 학생 31명이 대거 지원, 합격했다고 밝혔다(조선일보, 2005. 7. 18). 중국 내 대학생 또는 직장인인 이 학생들의 지원 사유는 오래전부터 꿈꿔오던 한국 유학을 한국에 직접 가지 않고도 저렴한 비용과 간편한 절차로 이를 수 있는 사이버대학의 장점을 활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한국에 대한 높은 문화적 관심을 해외 교육시장 확대의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 특히 중국 등 한류의 영향이 크고 인구가 많은 국가의 경우는 해당국의 언어로 구성된 강좌와 해당국가와 한국의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교육과정의 운영이 심도 있게 검토될 필요가 있으며, 해외에 진출한 한국기업과의 제휴를 통해 현지 진출 기업에 필요한 외국인 인력들에게 한국어 등 한국관련 지식이나 해당 기업과 관련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법도 가능하다(이준, 2005). 한편, 해외 거주 외국인 외에도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나 외국에 거주하는 재외 동포나 2세 등도 유사한 맥락에서 잠재적 교육수요자로서 볼 수 있다. 경희사이버대학은 2005년 7월 재미한인학교협의회(NAKS)

와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미국 내 1000여 개 한국 학교의 교사들이 국내의 교육 전문가들과 소통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디지털타임스, 2005. 10. 6). 이처럼 여러 재외동포 교사들이 사이버 교육에 대해 거는 기대를 보면서 170여 개국에 분산된 재외동포들에게 가장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의 형태는 온라인 교육임을 확신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대구사이버대학은 미국, 우즈베키스탄, 호주, 뉴질랜드 등에 거주하고 있는 교포들이 특수교육학과, 사회복지학과에서 수업을 받고 있는데, 현지 대학과의 교류협정을 통해 사이버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을 현지 대학으로 진학할 경우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⑨ 오프라인 대학과의 교류·협력 강화

오프라인 대학과의 교류·협력 과정은 세 가지 측면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사이버대학은 이론교육을 오프라인 대학은 실습교육을 담당하는 분담형 교육과정의 운영이다(이준, 2005). 사이버대학은 기본적으로 사이버공간을 교육의 장으로 하기 때문에 신체적 체험 혹은 실습이 필요한 교과 영역의 경우 사실상 내실 있는 교육이 어렵다. 그러나 체험을 필요로 하는 교육도 모든 교과 내용을 실습만으로 교육과정 전체가 구성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사이버대학과 오프라인 대학이 전략적 제휴를 통해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둘째, 사이버대학이 오프라인 대학에 비해 사회적 지명도가 낮은 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지명도 높은 오프라인 대학 혹은 동일법인의 오프라인 대학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공동홍보 및 공동입시를 통해 사이버대학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실제로, 열린사이버대학교는 강릉대학교, 공주대학교, 동덕여자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외국어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순천향대학교, 용인대학교, 인제대학교, 인하대학교, 제주대학교, 중앙대학교, 충북대학교 OCU 설립, 운영에 참여한 이들 14개 대학교와 상호 학점 인정, 각 학교의 교사(건물) 이용, 도서관 이용, 교과목 개설과 담당 교수 배정에 관한 협조, 정보와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공유하고 있으며, 한국사이버대학교는 2005년 7월 현재 교류협력을 통해 72개 강좌를 개설 44개 대학의 학생들이 수강에 참여함으로써 사이버교육의 수요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처럼 사이버대학은 학교법인이 설립한 사이버대학뿐만 아니라 컨소시엄형 비영리재단법인 사이버대학 역시 다양한 오프라인 대학과의 활발한 교류협력을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 학교법인이 운영주체인 사이버대학처럼 실질적인 교류협력을 위해서는 더욱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되어진다.

셋째, 오프라인 대학과의 실질적인 학점 교류를 통해 사이버대학의 재정 안정화를 기할 필요가 있다. 특히 오프라인 대학 입장에서 대형 강의 위주의 교양과목을 중심으로 학점교류를 통해 대형 강의실의 공간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함으로써 건물 유지보수에 들어가는 많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학생들이 강의 시간 중복으로 인해 듣고 싶은 과목을 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바 사이버대학과의 학점교류를 통해 시간에 구애됨이 없이 자유롭게 오프라인 과목을 수강할 수 있으며, 학생들의 시간활용도적인 측면에서 만족도를 높이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⑩ 사이버대학원의 설립

교육부가 주40시간 근무제를 앞두고 최근 교육부 직원 등 공무원 497명을 대상으로 '무엇을 배울 예정이냐'라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취미·여가 관련 교습(31.4%), 외국어(30%), 자격증 및 직무 관련 교습(25.8%), 대학·대학원 진학(10.9%) 등

이라고 응답하고 있다(국정브리핑 2005. 6.29). 즉, 자기개발을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 대학 및 대학원 진학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특히 직장인의 경우 오프라인 대학 및 대학원의 진학 보다는 사이버대학과 사이버대학원로의 진학이 현실적인 측면에서 유리한 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사이버대학에 재학중인 상당수의 학생들 역시 늦게 공부를 시작하였거나 관심 있는 영역에 대한 지식적 욕구의 증가로 인해 대학원 진학에 대한 욕구가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사이버대학원 과정은 전망이 매우 밝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오프라인 대학에서 개설중인 사이버대학원으로는 한양대학교 원격간호대학원, 세종대학교 산업경영대학원(e-business전공, 호텔관광경영전공, 부동산경영전공, 마케팅전공), 숙명여자대학교 원격대학원(항장미용전공, 원격교육공학전공, 유아교육정보전공, 실버산업전공), 중부대학교 원격대학원(사회복지학전공, 교육행정경영학전공, 교육상담심리학전공, 원격교육학전공, 부동산정보학전공), 한국방송통신대학 평생대학원(행정학전공, 경영학전공, 가정학전공, 정보과학전공, 평생교육학전공, 유아교육학전공) 등이 개설되고 있다. 하지만 오프라인 대학에서 개설중인 사이버대학원의 경우 사이버대학에만 개설되어 있는 특색학과에 대한 대학원전공 개설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진학기회를 열어주기 위해서라도 특수한 전공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이버대학에서의 대학원 설립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사이버대학 대학원 설립 및 운영을 통한 원격교육의 질적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임정근, 박병석, 장창익, 전신현, 김은기, 2006)에 따르면 원격대학원 설립 논의의 활성화를 위해 10개 대학의 사이버대학의 재학생 9,167명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사이버대학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이버대학원이 설립되면 지원할 것이냐는 질문에 전체 9,157명 중 5,583명(61%)이 지원하겠다고

답변하였으며 2,101명(22.9%)은 오프라인대학원에 진학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대부분의 사이버대학 재학생들이 대학원에 진학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으며, 특히 편의성과 교육의 질을 고려할 때 사이버대학원에 진학하는데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으며, 사이버대학의 졸업생과 재학생을 위해서라도 사이버대학원의 설립은 시급하다 할 것이다.

⑪ 해외 사이버대학과의 교류 협력 증진을 통한 국제 경쟁력 강화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의 온라인 대학이나 대학원 강의는 한국보다 한발 앞서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들 대학의 운영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대학이 독자적인 온라인 교육체제를 갖춰 학위를 주는 방식과 또 다른 방식으로는 온라인 교육업체가 학사관리 및 학위수여 등 전반을 맡고 대학은 이 업체에 강의내용만 전달하는 방식이 있는데, 1989년 사이버 MBA과정을 개설한 피닉스대를 비롯해 듀크대, 존스인터내셔널대 등 유명 대학들은 자체적으로 온라인 과정을 운영하면서 경영학 석사학위를 수여하고 있다(동아일보, 2000. 7. 23). 특히 이와 같은 대학들은 교육시장의 개방과 더불어 국내에 진출하였거나, 진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외국사이버대학의 진출은 국내 사이버대학의 시장을 일부분 잠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해외 사이버대학의 국내 진출을 인위적으로 막을 방법 역시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해외 사이버대학의 국내 진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해외 사이버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국내 사이버대학이 해외 교육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와 외국 사이버대학의 장점을 배울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이준, 2005). 특히 대구사이버대학은 미국 노바사우스이스턴대학교(NSU) 피슬러(Fischler) 교육대학원과 국제교류협약을 맺고 석·박사학위

과정 개설을 통해 미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미국 학위인정위원회(SACS)가 인증하는 석·박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매일신문, 2004. 8. 19).

⑫ 평생교육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고등교육기관으로의 전환을 통한 사이버대학의 이미지 제고 및 정부지원 확대

평생교육법 제22조는 다음과 같이 ‘원격대학’ 형태의 교육시설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즉, 누구든지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원격교육을 실시하거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평생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제1항의 경우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지만 평생교육법 제22조의 근본 문제점은 이 조문이 “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규정한 것의 모호함이며, 비현실성이다(허종렬, 2002). 이 조문을 규정한 본래 의도는 기존 대학을 가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대학 학력을 인정받는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그 형식은 평생교육시설로서 규정함으로써 설립과 운영이 용이하도록 하는데 있다. 그러나 이로써 나타난 문제점은 원격대학이 대학도 아니고 평생교육시설도 아닌 어정쩡한 것이 되어 관계당사자들을 혼란스럽게 한다는 것이다. 법적으로는 이것이 대학이 아니고 평생교육을 하는 하나의 시설로서 규정된 것이지만, 학생들과 교수들은 오프라인 대학과 같이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준하여 학사운영을 하고 있다. 특히 이와 같은 평생교육법의 모호함으로 인하여 현재 사이버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일례로 한 일간신문에서 기사화 된 보도 내용에 따르면 “사이버대학 학생은 대학생 아닌가요?”이란 내용으로 사이버대학

학생에 대한 부당함을 지적하고 있다. 즉, 전문대학원이나 기업 등에 따라 사이버 대학생을 일반 대학생으로 인정,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곳이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곳도 적지 않아 혼란이 적지 않다. 하지만 국민들의 평생교육을 위해 사이버대학 설립을 권장해 온 정부는 정작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는 지적이다. 가장 논란이 잦은 경우는 교통시설을 이용할 때다. 항공권을 살 때, 대한항공 국제선을 이용하면 만 25세 미만(은라인 예매 시 만 30세 미만)은 사이버대를 포함해 ‘정부에서 인가한 교육기관’의 학생의 경우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아시아나 항공에서는 혜택이 없다. 지하철 정액권을 살 때도 사이버대학생은 일반권을 사야 한다. 각종 미술관이나 박물관 등을 이용할 때도 곳에 따라 일반인 취급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의·치의학 전문대학원에 지원할 때도 차별을 받고 있다. 서울대 치의학전문대학원은 아예 사이버대학 출신은 지원할 수 없다고 못박고 있다. 경희대 의·치의학 전문대학원은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생물실험을 이수해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실험실습이 없는 사이버대 출신에게는 사실상 기회를 원천봉쇄하고 있다(서울신문, 2005. 9. 26). 그리고 오프라인 대학이 받고 있는 정부의 전폭적인 정책지원 역시 사이버대학은 콘텐츠 개발지원 사업 이외에는 전혀 받을 수 없는 처지에 있으며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 사이버대학에 대한 이미지 역시 상당히 추락되어져 있다. 따라서 사이버대학을 오프라인 대학과 같은 대학으로 인정할 것인지 혹은 평생교육시설로서 취급할 것인지를 분명하게 선택할 필요가 있다. 실제 시설로서 규정을 하려면 평생교육법에 그대로 남겨두고, 원격대학 형태를 가진 점을 폐기해야 할 것이다. 반대로 대학으로서 규정하려면 이것을 평생교육법에서 떼어내고 고등교육법으로 이관하거나 특별법을 만드는 것이 타당하다(허종렬, 2002). 하지만 사

이버대학은 현실적으로 오프라인 대학과 동일한 학사운영을 통해 전문학사와, 4년제 학사 학위가 수여되고 있음을 감안해 볼 때, 평생교육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고등교육기관으로의 전환이 바람직하다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사이버대학에 인식제고 및 각종 자격증과 관련된 제도적 혜택과 정부의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통해 새로운 미래대학의 모델을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⑬ 사이버대학 간의 건전한 경쟁질서 확립

사이버대학도 오프라인 대학과 마찬가지로 공급자 수의 증가와 “Winner takes all” 시장의 특성으로 인하여 사이버대학 간에 백화점식 학과 개설로 인한 무차별적 과당경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오프라인 대학에 비해 상대적 인지도의 부족으로 라디오, TV 및 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한 과잉홍보와 이로 인한 부실한 학사운영이 발생되고 있다. 또한 기존의 오프라인 대학과는 달리 학점 당 등록금을 책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이버대학간의 등록금 수준은 높은 편차를 보이고 있다. 지명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대학의 경우 학교 운영에 막대한 영향을 줄 정도로 낮게 등록금을 책정함으로써 학교운영뿐만 아니라 콘텐츠의 질 저하 등으로 인해 결국 전체 사이버대학에 대한 이미지에 손상을 미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이버대학간의 과당경쟁은 결국 사이버대학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나아가 사이버대학에 대한 존립을 어렵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 수요자의 요구에 부합할 수 있는 특성화전락과 같은 건전한 경쟁을 통해 사이버대학들이 윈-윈(win-win) 할 수 있는 건전한 경쟁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V. 결 론

출범 6년째를 맞이하고 있는 사이버대학은 양적·질적으로 기회와 어려움을 동시에 경험하고 있다. 특히 미래 교육의 패러다임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의 형태로 변화되어지는 시점에서 온라인 교육의 대표적인 대학교육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사이버대학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 사이버대학은 개교한지 5년 만에 전국에 17개(4년제 15, 2년제 2)가 설립되었으며, 개설 학과 수 180개, 재적생 56,460명, 졸업생 4,016명의 규모로 성장하였다. 하지만 급속한 양적인 성장은 학사운영 및 학교운영 전반에 있어서의 질적인 문제를 야기한 점도 있다. 이는 설립 초기에 나타날 수 있는 학교 운영 경험의 미숙과 사이버대학의 특성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향후 사이버대학이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SWOT분석을 통해 나타난 강점과 약점, 기회와 위협을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미래의 대표적인 대학 모델로 거듭 태어나야 할 것이다. 사이버대학의 강점(Strengths)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는 교육의 기회제공, 고등교육의 기회와 평생교육의 연결고리 역할을 통한 교육의 기회 제공, 직장인 및 주부, 노인 등에 대한 재교육, 평생교육의 기회 제공, 교육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유연하고 특성화된 교육의 기회 제공, 우수한 강사진의 확보 및 콘텐츠 개발, 기술의 발전을 통한 양질의 콘텐츠 제공을 들 수 있다. 또한 학교법인인 사이버대학의 강점(Strengths)은 오프라인 대학과의 교류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와 기존 오프라인 대학의 명성을 통한 사이버대학의 이미지 제고를 들 수 있으며, 컨소시엄형 비영리재단법인인 사이버대학의 강점(Strengths)은 학교법인인 사이버대학과는 달리 온라인 특성을 쉽게 적용함으로써 유

연한 학사운영이 가능하다. 그리고 사이버대학의 약점(Weaknesses)으로는 평생교육기관과 고등교육기관의 양면성으로 인한 정체성문제, 사이버대학간의 과당 경쟁으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 오프라인 교육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수-학습자간의 상호작용성 부족, 실험 및 실습 교과목에 대한 개발 및 학습의 어려움, 표준화된 학사운영 프로그램의 미비로 인한 학사관리의 어려움, 재학생 재 등록률 저하를 들 수 있다. 또한 학교법인 사이버대학의 약점(Weaknesses)으로는 오프라인 대학의 영향으로 인한 오프라인적 마인드의 형성과 오프라인 대학의 제반규정을 사이버대학의 특성을 반영하여 적용하는데 현실적 어려움을 가지고 있으며, 컨소시엄형 비영리재단법인 사이버대학의 약점(Weaknesses)으로는 학교법인 사이버대학과는 달리 대학운영 경험 미숙으로 전반적 대학행정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한편, 사이버대학의 기회(Opportunities)로는 미래 발전적인 대학의 모델 가능성, 사이버대학의 글로벌화 가능성, 사이버교육의 지속적 발전 가능성, 평생 교육에 대한 수요 증가, 기업 및 단체의 사이버를 통한 재교육, 위탁교육, 특수교육 등에 대한 수요 증가, 오프라인 대학과의 협력을 통한 안정적인 사이버교육 수요 확보 가능성, 사이버대학 졸업생들의 대학원 진학 증가가 있다. 또한 학교법인 사이버대학의 기회(Opportunities)로는 오프라인 대학과의 학점교류를 통한 안정적인 사이버교육 수요 확보 가능성을 들 수 있으며, 컨소시엄형 비영리재단법인 사이버대학의 기회(Opportunities)로는 컨소시엄대학간의 교류 활성화를 통한 안정적인 사이버교육 수요의 확보 가능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사이버대학의 위협(Threats)으로는 오프라인 교육기관(대학)의 사이버교육 시장의 진입 강화, 한국방송통신대학 등 경쟁기관에 비해 인지도 부족 및 가격경쟁력이 낮음, 평생 교육을 위한 새로운 형태의 사이버교육기관 설립의 증가, 해외 사

이버 교육기관의 국내 진입 증가, 시스템에 대한 외부의 위협 요인 증가를 들 수 있다. 또한 학교법인 사이버대학의 위협(Threats)으로는 오프라인 대학의 보수성으로 인해 온라인대학의 빠른 변화에 대응이 느리며, 오프라인 대학과의 교류가 원활하지 않을시 오히려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리고 컨소시엄형 비영리재단법인 사이버대학의 위협(Threats)으로는 구성기관의 의견차이로 인해 학교 내/외부의 문제에 대한 의견 조율이 원활하지 않으며, 이사회 개최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의 지연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처럼 SWOT 분석을 통해 낸 사이버대학의 강점과 약점 그리고 변화가 가져다주는 기회와 위협을 토대로 향후 사이버대학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한 전략적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새로운 교육수요에 부합되는 현장중심의 다양한 특성화된 학과를 신설함으로써 사이버대학의 교육수요를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사이버대학의 교육서비스 영역을 학사학위 수여기관의 역할뿐만 아니라 전문화된 맞춤형 교육기관으로서의 이미지를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셋째, 학생들과의 상호작용성의 확대를 통한 학생만족도 및 소속감을 높일 필요가 있다. 넷째, 사이버대학의 특성에 맞는 독자적인 특성화 전략의 수립을 통한 재정적 수입원의 다양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사이버대학의 핵심 경쟁우위의 원천은 양질의 콘텐츠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콘텐츠 질을 확보 할 수 있는 질 관리 프로그램을 도입·운영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학습관리 시스템(LMS), 학습콘텐츠관리시스템(LCMS), 콘텐츠개발관리시스템(CDMS), 상담시스템, 인터넷 증명 발급 및 웹 출력 시스템 등 학사운영 전반에 걸친 시스템의 구성과 학사 운영 및 관리 체계를 제고하고 학습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표준화된 학사운영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 일곱째,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시스템의 안정적 유지,

운영을 위해 보안에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콘텐츠 및 학사정보와 관련된 안전성을 확보시킬 필요가 있다. 여덟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인터넷의 특성을 살려 외국학생 및 재외동포에 대한 교육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아홉째, 사이버대학과 오프라인 대학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 할 수 있도록 오프라인 대학과의 실질적인 교류·협력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열번째, 주5일제 근무와 평생교육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사이버대학원에 대한 진학욕구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다. 오프라인 대학원의 경우 사이버대학에만 개설되어 있는 특색학과에 대한 대학원전공이 개설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진학기회를 열어주기 위해서라도 특수한 전공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이버대학에서의 대학원 설립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열한번째,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의 온라인 대학이나 대학원 강의는 한국보다 한발 앞서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해외 사이버대학과의 교류 협력 증진을 통해 국내 사이버대학이 해외 교육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와 외국 사이버대학의 장점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질 필요가 있다. 열 두번째, 사이버대학은 현실적으로 오프라인 대학과 동일한 학사운영을 통해 전문학사와, 4년제 학사 학위가 수여되고 있음을 감안해 볼 때, 평생교육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고등교육기관으로의 전환이 바람직하다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사이버대학에 인식제고 및 각종 자격증과 관련된 제도적 혜택과 정부의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통해 새로운 미래대학의 모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열 세번째, 사이버대학은 교육 수요자의 요구에 부합할 수 있는 특성화전략과 같은 건전한 경쟁을 통해 사이버대학들이 윈-윈(win-win) 할 수 있는 건전한 경쟁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이버대학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미래 교육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이버대학을 둘러싸고 있는 구성원들의 노력과 의지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 강인원, 최지호, 이성근(2005), "사이버대학의 e-Learning 서비스에서 신리 차원이 학교충성도에 미치는 영향," 경영학연구, 제34권 제4호, pp. 1143-1164.
- 권문택(2005), "유비쿼터스 환경하의 사이버대학 정보시스템구축 모델에 관한 연구," **한국경영정보학회 춘계 학술대회 논문집**, pp. 237-245.
- 박종선(1999), "개별학습을 위한 웹 기반의 적응적 코스웨어 설계 및 구현," **한국컴퓨터교육학회 논문지**, 제2권 제4호, pp. 111-117.
- 박준철, 정기호(2005), "사이버대학교 학생의 자기효능감, 학생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이론적 연구," **한국인터넷전자상거래학회 2005년 춘계 학술대회 논문집**, pp. 141-151.
- 오혁진(2003), 평생교육경영학, 학지사.
- 이준(2005), "교유과정 특성화를 통한 사이버대학 발전 방안 연구," **한국컴퓨터교육학회 논문지**, 제8권 제1호, pp. 43-53.
- 이준, 정민승, 임연옥, 이경순(2004), "원격대학 발전을 위한 정책 개선 방안," **한국교육**, 제31권 제22호, pp. 391-414.
- 임연옥(2002), "원격대학교육의 접근성과 질 제고를 위한 제언," **교육법학연구**, 제14권 제2호, pp. 245-266.
- 임정근, 박병석, 장창익, 전신현, 김은기(2006), "원격대학원 설립 및 운영을 통한 원격교육의 질적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원격대학협의회 교육정책 연구보고서, pp. 1-116.
- 최경애(1997), "가상교육체제 연구의 배경과 국내외 가상교육 현황," 가상교육 구상을 위한 연구협의회 발표

- 자료,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방송통신 연구소.
- 허종렬(2002), “원격대학 관련 법령 정비 방안,” **교육법학 연구**, 제14권 제2호, pp. 267-296.
- 황대준(1998), “가상대학의 현황과 발전방향,” **정보과학회지**, 제16권 제 10호, pp. 6-15.
- 교육인적자원부(2005), **교육통계연보**
- 국민일보, 2004년 10월 11일자 기사
- 국민일보, 2006년 2월 1일자 기사
- 국정브리핑, 2005년 6월 22일자 기사
- 국정브리핑, 2005년 6월 29일자 기사
- 내일신문, 2005년 7월 14일자 기사
- 노컷뉴스, 2005년 9월 6일자 기사
- 동아일보, 2000년 7월 23일자 기사
- 디지털타임스, 2004년 2월 11일자 기사
- 디지털타임스, 2004년 2월 9일자 기사
- 디지털타임스, 2005년 10월 6일자 기사
- 매일경제신문, 2001년 12월 4일자 기사
- 매일신문, 2004년 8월 19일자 기사
- 서울경제신문, 2005년 1월 18일자 기사
- 서울신문, 2005년 9월 26일자 기사
- 연합뉴스, 2004년 11월 25일자 기사
- 연합뉴스, 2005년 1월 30일자 기사
- 연합뉴스, 2005년 7월 21일자 기사
- 연합뉴스, 2005년 8월 29일자 기사
- 전자신문, 2004년 4월 19일자 기사
- 전자신문, 2005년 9월 16일자 기사
- 조선일보, 2005년 7월 18일자 기사
- 파이낸셜뉴스, 2003년 4월 13일자 기사
- 한경비즈니스, 2004년 2월 25일자 기사
- 한국일보, 2001년 6월 10일자 기사
- 한국일보, 2003년 12월 18일자 기사
- 한국원격대학협의회 2005년 7월22일자 보도자료

Strategies for the Growth of Cyber University

JunCheul Park*

Abstract

Cyber university began six years ago, it has been experienced in opportunities and difficulties of quantity and quality. Especially, bring on a change a point of time from off-line to on-line of future education paradigm, many people more and more interested in, representative of on-line education, cyber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strengths, weaknesses, opportunities and threats of cyber university. Based on a state of affairs cyber university, the literature review, and the SWOT analysis, I recommended strategies for the growth of it.

Key Words: cyber university, SWOT

*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Daegu Cyber University